'中 경착륙'… 최대 글로벌 리스크

산은경제연 '10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中정부 디레버리징 본격화시 경제 둔화 가능성↑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글로벌 리스크로 중국의 경착륙과 유럽연합(EU) 분열 등이 선정됐다.

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13일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자료를 정리한 '10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눈여겨 봐야 할 최대 위험요인은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다.

중국은 오는 11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권력구도를 재편할 예정이다.

현재 시진핑 2기의 경제정책은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요약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과잉신용'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은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치며 경제에 안정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EIU는 중국이 디레버리징 본격화에 나설 경우 올해 6.0%인 경제성장률이 내년 4.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급격한 경기침체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며 "이 경우 라틴아메리카와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수출국은 물론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진 서구 선진국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U 분열 가능성도 올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반(反)EU를 표명하고 있는 극단주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랑을 고백하세요 최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에서 발렌타인데이 기념 공개 프러포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러포즈 이벤트는 사전에 응모해서 최종 선정된 주인공 커플들에게 대형 전광판 프러포즈 영상과 함께 다이아몬드 커플링, 디너 식사권 등을 제공한다.

특히 EU 설립의 당사자였던 집권 정당들마저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흡수하기 위해 EU 탈퇴 투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원은 "반EU와 국가 우선주의적 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난민 문제 등에 기인한다"며 "유럽 지역 통합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EU는 실제로 분열될 것이며 그 파장은 세계 최대의 단일 무역 구역인 유럽의 성장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엄청난 통화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산은경제연구원은 올해의 글로벌 리스크로 ▲유로존(Euro Zone) 탈퇴국 등장 ▲신흥국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 급등 ▲신흥국 기업 채무위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남중국해 분쟁 가능성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반세계화 움직임 ▲원유생산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가능성 등을 꼽았다.

실제 이벤트 발생시 나타날 리스크의 강도(25점 만점)는 중국의 경착륙, EU 분열, 유로존 탈퇴국 등장, 신흥국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 급등 등이 15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신흥국 기업 채무위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남중국해 분쟁 가능성,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반세계화 움직임, 원유생산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 등은 12점이고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은 8점을 기록했다. /뉴시스

'무인이동체' 개발에 5년간 545억원 투입

미래부,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선 등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까지 총 5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1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탐지·인식·자율지능·동력원·통신 등 공통기술 ▲차세대 원천기술 ▲소형 무인기 성능향상 기술 ▲저고도 무인기 교통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9월 R&D(기술개발)가 착수된 이번 사업은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술을 종합·개선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소형 무인기 성능향상 기술개발의 경우, 관계 부처청·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수요와 기술공급 기업을 매칭함으로써 초기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단기간에 특정 임무수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 중이다.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3개를 추가 지원한다.

공공수요에 기반해 개발된 소형무인기는 작년 9월 체결된 미래부·조달청 업무협약에 따라, 기술개발 완료 후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품목 등록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부터 미래부·국토교통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UTM)'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기술개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성과가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기에 상품화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주 1회 사업단 내에 변리사가 상주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10월에는 '온라인 기술장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정병선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개발과 원천기술 확보를 서둘러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티빙' 실시간TV 무료화로 '급성장'

1월 UV, 전년 동월 114만명 대비 177% 이상 성장

'티빙'의 실시간TV 무료화 전략이 통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13일 CJ E&M에 따르면 티빙의 1월 UV(방문이 중복되지 않은 순 방문자 수)는 315만명으로 실시간 TV 무료화 이전이었던 전년 동월 114만명 대비 177%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티빙의 월평균 UV가 92만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242% 성장한 것이다.

이같은 개편에 힘입어 티빙 앱의 1월 다운로드는 전월 대비 100% 증가한 108만건(와이즈앱 기준)을 기록했으며, 애플 아이패드 앱스토어 인기순위 1위를 기록(1월 23일 기준)하기도 했다.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한 적은 있으나 전체 앱스토어 인기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빙 자체 추산 지표인 신규회원 가입자 수는 1월 40만명을 기록하며 기존 티빙 최고 수치를 67% 이상 뛰어넘었다.

질적인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시청시간의 경우 개편 전 대비 90% 이상 증가했다.

티빙은 개편 이후에도 디지털 마케팅 선호 타깃인 20~39세 이용자 비중이 전체의 67%로 큰 비중을 보였다. 이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79%를 차지했다.

티빙은 YTN 등 보도채널을 지난 6일 전격 도입한데 이어 향후 CJ E&M 콘텐츠 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조대현 CJ E&M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채널 추가와 서비스 개선, 스핀오프 콘텐츠 제작 확대 등 최고의 OTT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빙은 tvN, Mnet, 온스타일, OGN, 투니버스 등 약 16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HD급 고화질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 /뉴시스

금감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35명 적발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챙긴 운전자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타낸 35명을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금감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의사고 고위험 대상자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수령규모와 연간 집중 사고건수 등을 조사해 고의사고 다발자를 가렸다.

이들은 차선을 바꾸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접촉해 사고를 낸 후 장기간 입원을 하며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챙겼다.

본인 차량에는 4인 이상을 태워 피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뿐 아니라 운전자보험금도 추가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통상 차량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등 형사상 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나, 혐의자들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 등에 가입해 치료지원금과 입원일당 등을 챙겼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례도 발견됐다. /뉴시스

KT스카이라이프, UHD 가입자 50만 돌파

KT스카이라이프는 초고화질(UHD) 방송 가입자가 5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상파 UHD 본방송이 예정돼 있다.

국내 UHD TV 보급 확대도 긍정적인 요소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국내 UHD TV 판매대수가 지난해 누적 100만대를 돌파해 올해 68만대, 2019년에는 약 104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에릭슨,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해 올해 Live HDR(High Dynamic Range) 상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 지난해 선보인 안드로이드TV 상품 'skyUHD A+'를 통해 UHD VOD 콘텐츠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스카이라이프 UHD 전용관'에서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한 큐레이션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